

#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며(1)

## 이 미 정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2기 수료생

정경종합건설(주) 기술부 주임

당사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으로서 소규모 공사가 많고 회사의 규모로 말미암아 본사나 현장이 일반적으로 안전에 관해 거의 무관심하고 법적인 사항에서만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경영자나 현장소장 이하 직원은 안전관리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각 현장에서 큰 재해는 비록 없었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는 재해예방은 물론 현장의 작업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오르게 하고 공기를 단축시켜, 결과적으로는 고품질의 건축물을 생산하게 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나 소장 이하 직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관리감독자 위탁교육이나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을 이수케 하여 실무자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없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당사에도 관공서나 관련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공문이 접수되고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자료제공이 절실하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당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중소규모의 건설업체의 안전관리가 좀더 올바르고 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본인은 이 3주간의 교육을 통해 건설업무에 관한 또다른 지식습득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준 당사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감사를 드린다.